

6. 성균관에서 평생 공부할 책을 얻다.(23세)



퇴계가 23세 때 한양으로 올라가 성균관에 유학하게 되었는데,



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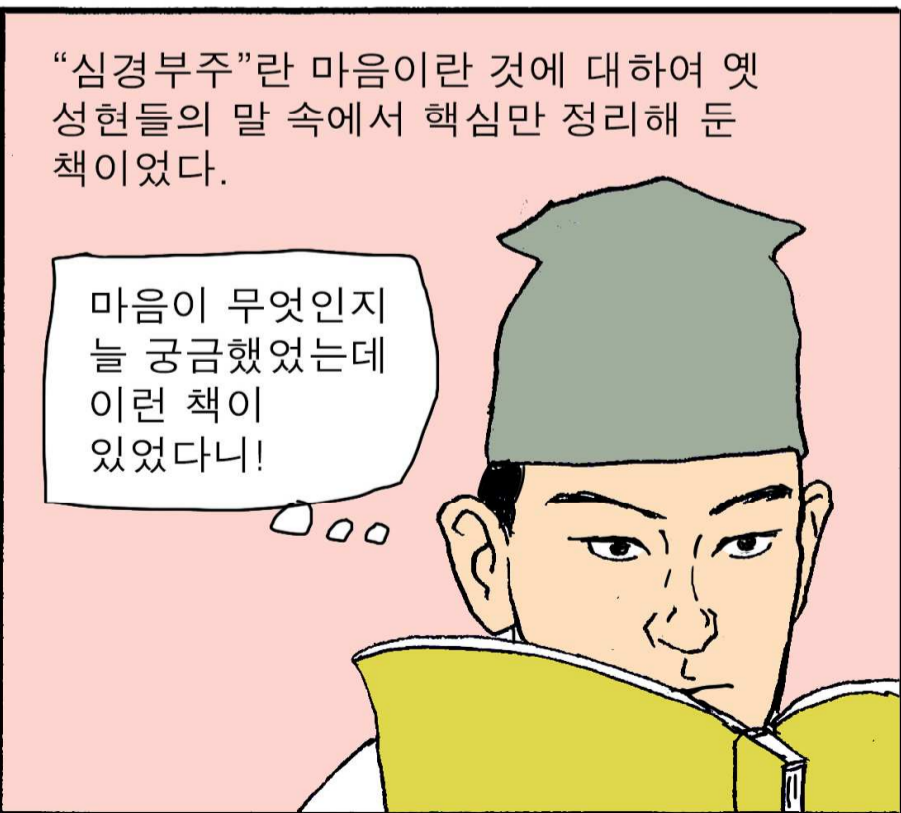
안동에서 올라온 유생이라던데...



촌뜨기구만, 근데 왜 저리 점잖아?

촌에서 공부 좀 했다 이거지.





옛 성현들이 대대로 이어가며 전해준 가르침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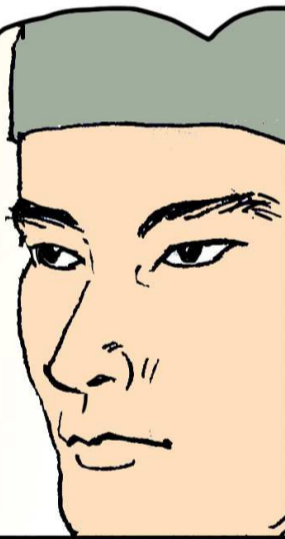


학문의 가장 근본은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이로구나.

퇴계는 이때 깊이 깨달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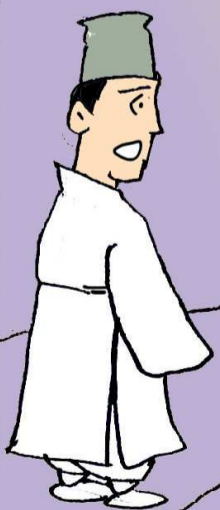
“마음의 본성을 찾아 가는 길”  
늘 목말라하며 찾아 헤매던  
길이 바로 이것이었어!



일찌기 학문에 뜻을 세웠으나 뚜렷한 방법을  
몰라 길을 헤매었으나



이때에야 비로소 그 길을 찾았고 환해진  
느낌이었다.



그뒤로 퇴계는 “심경부주”를 어느 경전 못지  
않게 소중하게 생각했다.



심경을 읽을 때는 글 속에 깊이 빠져  
거듭해서 읽었다.

읽고  
또 읽고...



그러다가,

이러한 구절대로  
실천하려면 어떻게  
해야 하지?



생각이 막혔을 때는

옛사람들은  
어떻게 생각하고  
행동했을까...?



하면서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그 구절의  
뜻과 철학적 의미를 깊게 살펴보았다.

아, 이책엔  
이렇게 설명  
되어 있구나!



그렇게 오래 계속하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서



물리가 터져 무엇이든지 환하게 깨닫지  
않는 바가 없게 되었다.

